

냉·난방분야의 독보적인 ESCO

설계에서 시공까지 All Round Service 제공

장한기술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특화된 기술을 배경으로 특화된 ESCO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목표는 ESCO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ESCO계의 바람과도 통한다.

이선희 기자 ▶ (w3master@energycenter.co.kr)

세계로 열린 문

ENGINEER

장한기술에 오시면 세계최고의
기술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HYDRONICS &
PUMPING SYSTEM

AMTROL, INC.
日立造船(株) (HITACHI)
COULDS P

HEAT TRANSFER
& ENERGY SYSTEM

CONTROLS
ENVIRONMENT

유해성 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직원들이 회사 현관에서 카탈로그 촬영을 위해 사진을 취한 모습.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류사장은 냉난방 및 냉동기계 기술사로 관련 국제대회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지난

6월 준공된 지하4층, 지상41층 규모의 강남 ASEM 컨벤션센터 및 사무동에는 장한기술의 축열조 99대가 설치되어 있다. 올해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간 세계 26개국의 정상들이 만나 국제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ASEM 타워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컨벤션센터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한 뜻깊은 현장에 빙축열설비를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 장한기술 ESCO 팀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 아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설비분야의 기술혁신 추구’

지난 87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밀폐식 팽창탱크 및 부스터 펌프 기술을 도입한 이래 국산화까지 이뤄낸 장한기술(주)(대표 류해성)의 슬로건이다. 기술력을 중시여기는 사풍(社風)에 따라 ESCO사업도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냉·난방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스터펌프 시스템, 밀폐식 팽창탱크, 판형열교환기, 빙축열 냉방시스템 등 설비제조와 판매를 하던 장한기술이 ESCO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97년 7월, 1, 2종분야 모두 등록하여 조명, 냉·난방, 빙축열을 중심으로 ESCO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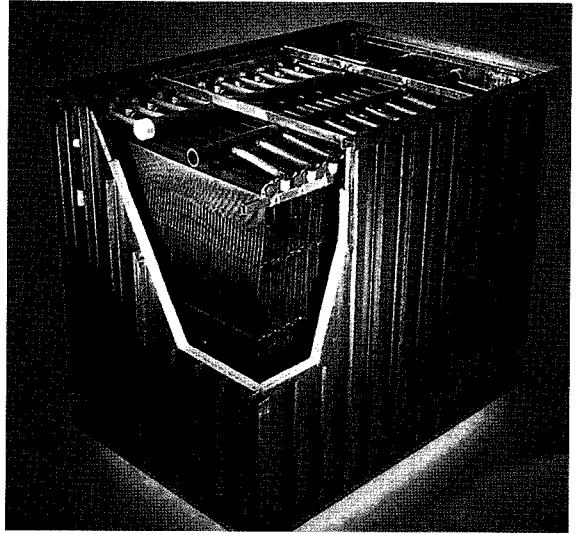


ESCO팀을 맡고 있는 방규원 이사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 빙축열 탱크가 마침 ESCO자금 지원대상이었고 선진 외국에서의 ESCO사업 발전 추세를 보전대 우리나라에서도 ESCO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ESCO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며 “특히 냉난방기자재 생산업체중 기술력과 경험을 겸비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이 분야의 독보적인 ESCO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장한기술이 ESCO부문에서 올린 매출은 29억9천만원. 그리 많지 않은 액수이지만 KBS방송국, 국립기술표준원 등의 ESCO사업을 진행했고, 특히 삼성동 무역센터내 ASEM 타워 및 사무동 빙축열공사는 장한기술이 자랑으로 삼을 만한 기념비적인 사업이다. 냉동공조 전문업체인 (주)센추리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축열조 부문에서만 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빙축열 냉방시스템은 하절기 냉방 전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값싼 심야전력을 이용, 얼음을 만들어 저장했다가 주간에 얼음을 녹여 냉방을 하는 설비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냉방방식이다. 장한기술이 지난 93년 미국의 FAFCO사와 기술제휴하여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Ice Stor 빙축열조」는 균일한 고밀도 코일배열로 IPF(빙축전율) 90%를 실현하여 설치면적이 작고 제빙, 해빙효율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냉방시스템과 비교하여 에너지비용의 절감효과가 우수하고 여타 빙축열시스템에 비해 스페이스 감소, 공사비 절감을 실현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SEM 컨벤션센터에 설치된 빙축열시스템은 일반 터보 냉동기방식보다 투자비에서 26억7천만원 가량이 더 소요되지만 운전비용에서 매년 7억1천만원 가량의 절감이 가능해 3.7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 93년 미국의 FAFCO사와 기술제휴하여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Ice Stor 빙축열조」는 균일한 고밀도 코일배열로 IPF(빙축전율) 90%를 실현하여 설치면적이 작고 제빙, 해빙효율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시운전중인 이 설비는 장한기술의 자랑이다.

“ESCO사업의 모든 분야에 자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ESCO와의 비교우위는 냉난방분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해성 사장님을 위시해서 기술개발인력이 10여명에 이르고 13년 전부터 센추리에 축열조를 공급했던 전력에 비추어 보아 설계에서부터 시공, A/S까지 All Roun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한기술은 젊은 회사로서 향후 수익성 위주의 ESCO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방규원 이사는 앞으로의 ESCO사업은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례로 10여년 전부터 장한기술이 중점을 두고 참여해왔던 지역난방 개보수시장에도 어느덧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난립하는 상황이 도래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수익성 저하를 불러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장한기술은 수익성이 낮은 입찰은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빙축열을 중심으로 한 ESCO사업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 6월 준공된 ASEM컨벤션센터 전경. 장한기술의 축열조 99대가 설치되었다. 최근 냉방방식 중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이 빙축열냉방설비는 일반 터보 냉동기방식보다 설치비는 고가이지만 3.7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정한 ESCO 정신으로 사업 추진하는 ESCO ASEM 컨벤션센터에 축열조 99대 납품 설치

그동안 ESCO사업은 업체수가 80여개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ESCO 중 상당수가 페이퍼(서류상) ESCO일 뿐이고 활동중인 ESCO들도 한정된 분야에 치중해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 장한기술은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컬러를 갖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장한기술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력 배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지역난방 설비 팩키지 시스템은 올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양산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기술은 공장 안에서 열교환기, 배관 및 펌프 등을 팩키지화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장한기술은 96년 11월에는 '회전수 제어방식의 부스터 펌핑 시스템' 기술개발로 KT(국산신기술)마크를 획득했고 벤처기업지정(98년 5월), ISO 9001인증 획득(99년 4월)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장한기술의 직원은 70명이고 그중 ESCO팀은 6명이다. 적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기술연구소 및 개발인력을 합치면 중소기업의 약점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방이사는 강조했다.

올해 회사전체 목표매출액 100억원 중에서 ESCO사업으로 기대하는 매출액은 20억원이다.

ESCO사업은 아직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에 크게 좌우될만큼 정립되지 못한 단계에 놓여 있다. 자금지원 및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고는 있지만 ESCO들이 바라는 것만큼 명쾌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ESCO 내부에서도 입장차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인천 남동공단 내에 위치한 장한기술(주)의 본사 및 공장 전경.

따라서 "ESCO의 생명은 에너지절약의 아이디어와 방안을 마련하고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로지 영업만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ESCO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방이사의 충고는 새겨들어야 한다.

장한기술주식회사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속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특화된 기술을 배경으로 특화된 ESCO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목표는 'ESCO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ESCO계의 바람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 '장한 사람'들이 정말 '장한 ESCO'로 우뚝서기를 기대해 본다.

